

## 거리로 나온 Artist-in-Residence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 유승덕

작가, 작업실, 갤러리의 삼각구조는 비교적 오랜 기간 미술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일반적인 구도로 인식 되어왔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시각예술계의 삼각관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소위 전위적인 일부 예술가들이 이러한 미술계의 전통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예술품창작 전용공간인 스튜디오를 벗어나 길을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이는 폐광을 찾아서, 어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사막을 찾아서,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길거리에서 창작행위를 펼쳤다. 이곳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창작공간이자 전시 공간으로 변하면서 미술품의 생산과 유통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과감한 시도가 작가-작업실-갤러리로 이어지는 삼각구조를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전통적 의미의 미술품 생산과 유통의 구도를 깨기 위한 시도는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공간으로서의 작업실과 전시공간으로서의 갤러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실효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 떠나서 생고생하며 산과 사막을 헤매며 인적 없는 사이트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던 작가들마저도 사진이나 영상 등 작업의 기록물을 챙겨들고 또 다시 전통적 개념의 전시공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관람객 확보와 작품보존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큰 힘 안들이고 처리하기에는 그래도 미술관이나 갤러리만한 공간이 없었을 수도 있다. 작업공간 역시 자연의 변화를 한 몸으로 맞이하는 한시적이고 불안한 야외 거처가 고정적이고 안락한 전통적인 스튜디오의 대안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히피의 피를 물려받은 방랑벽이 강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공간과 작업을 유통시키는 갤러리 시스템을 훌훌 털어버리고 집을 나서는 시도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집 떠나서 한곳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떠돌면서 창작의 원천을 찾는 예술가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거주공간을 지원해주고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대적 개념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단순한 예술창작촌 형태까지 포괄한다면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되었고 그 유래도 가깝게는 몽마르트 화가들의 근거지였던 르 바토 라보와르(le Bateau-Lavoir)에서부터 멀게는 빌라 메디치(Villa Medici)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당시의 창작촌은 아무래도 전문화된 예술가 지원시스템을 갖춘 지금의 레지던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최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양상은 예술가들에게 작업실 공간을 제공하던 차원을 넘어서 실험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근년 들어 우리나라에도 많은 레지던시가 만들어져서 붐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주도형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대안공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생겨나면서 예술가들의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안산 원곡동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바로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민간단체 주도형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안공간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보다 시설 면이나 지원조건 등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입주작가들을 위한 상시적인 창작공간이나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비관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지역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만이 가지는 장점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페이스 빔이나 스톤앤워터 그리고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같은 공간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색채를 가진 특성화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된 레지던스의 탄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독특한 기획이나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공간들이 소재한 지역에서 그동안 펼쳐왔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필자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에서 진행되었거나 올해 진행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2007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는 설립 다음해인 2008년에 두 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하나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조동모서-예술가들의 장돌뱅이 프로젝트”라는 공공미술프로젝트와 결합된 형태의 국제레지던스로 화성시에 위치한 사강시장에서 빈 점포를 임대해서 진행되었다. 다른 재래시장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생업공간에서 예술행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은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접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리트머스에서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서 진행했던 사강시장프로젝트는 시골 재래시장에서 진행되었던 공공미술형 국제레지던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실험을 시도한 것에 만족해야만 했고 참여자 모두에게 여러모로 많은 숙제를 남겼던 프로젝트였다.

동일한 해에 시도되었던 또 다른 레지던스로 “듀얼게임”이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입주작가를 운영기관에서 모집하여 진행하는 일반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듀얼게임은 1차적으로 선정된 한국작가를 외국으로 파견하여 자신의 작업 파트너 작가를 그곳에서 섭외하고, 이들을 다시 리트머스가 있는 안산시 원곡동으로 불러들여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낯선 외국 땅에서 벌어지는 셀프 매니지먼트 방식의 진행은 일부 참여작가에게 힘든 과제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작가 스스로가 국제교류의 경험을 쌓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독창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유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프로그램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네팔, 베트남 작가 4명과 한국작가 4명이 짝을 이루어 서로 다른 문화와 작업세계에 대한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안에서 협력프로젝트를 마쳤다.

2008년 듀얼게임에 이어 2009년에도 듀얼게임 방식의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로티 위에 한국식 카레 밥”이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한 이 프로그램에는 8쌍의 국내외 작가가 짝을 이루며 협업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특이사항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동일한 시기에 “국경없는마을 클럽데이”라는 흥대 클럽데이를 차용한 다문화지역행사가 리트머스의 주도하에 원곡동일대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입주작가는 퍼포먼스 등의 작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 지역예술축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문화지대인 원곡동의 중심지인 만남의 광장에서 작가 나름대로 보고 느낀

이 지역의 특성을 관객참여형 작업으로 풀어내고 이를 통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불특정 다수의 이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도 시도하지 않던 듀얼게임의 진행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레지던스 방식이지만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협업과정으로 참여작가들이 듀얼이 아닌 솔로로서 나홀로 작업을하다가 프로그램을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듀얼게임 방식의 레지던스의 독창적인 기획의도를 실행과정에서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치밀한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리트머스의 주관으로 동시에 진행 된다. 하나는 “원곡동 레시피”라는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작가 8명이 다문화특구인 원곡동에 입주하여 다문화적 소스를 재료 삼아 창작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다른 하나의 레지던스는 “IR-인터커넥팅로드”로 국내작가 8명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공장지대인 반월, 시화공단과 다문화 지대인 원곡동의 두 거점을 오가며 진행될 예정이다. 후원기관이 서로 다르고 컨셉도 다르지만 동일한 운영기관(리트머스)에서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는 이 두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역시 리트머스가 접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 리트머스에서 진행될 이 두 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수도권 최대의 제조업 생산단지인 반월, 시화공단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 형성된 원곡동 국경없는마을의 어제와 오늘의 다문화적인 환경 모두를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아울러 예술창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한시적으로 이주해온 작가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 안에서 진행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매개로 이주와 정주, 예술생산과 산업생산의 경계를 재조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기까지는 주로 리트머스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봤지만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기반의 다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도 몸집이 크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소위 관주도형의 레지던스와 차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주작가들에게 훌륭한 작업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 이것이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레지던스의 원래의 뜻인 단순히 ‘거주’ 개념의 레지던스는 동시대 예술가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입주작가들에게 개인 창작공간을 제공할 여건이 안돼서 시작했던 리트머스의 소위 ‘길바닥 레지던스’도 이제 차츰 특성화된 레지던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어느 CF 속 카피문구처럼 안락한 개인 창작공간을 가지지 않은 레지던스는 필연적으로 작가들을 낯선 환경의 저차거리로 내몰게 되고 이는 사서하는 고생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만일 레지던스가 작가 자신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던 작업공간과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까지 이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술이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듯 동시대의 레지던스도 노마드적인 동시대의 트렌드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하고, 그 이동한 곳의 환경과 접속하고, 그 접속을 통하여 또 다른 에너지를 창출시키는 동시대적 노마드의 메커니즘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유랑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

그럼은 고정된 거주공간의 개념보다는 탐험대를 위한 베이스캠프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들의 문화적, 예술적 탐사와 탐험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